

성서한국

2014 가을 제60권 3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성경 인사이드

성서 속의 식물들

성경 속의 놀라운 이야기

선교지에서 온 소식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대한성서공회는 2014년 현재 세계 146개 성서공회들로 구성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 출판, 반포, 활용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성경 운동 네트워크로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을 위하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첫 번역 성경을 지원받은 콩고민주공화국 음반자 부족 어린이들



성서공회 사역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 성서공회들을 위하여 성경의 제작과 출판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경을 기증받고 기뻐하는 필리핀 사람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아프리카와 동남아, 중남미의 많은 성서공회들은 문맹퇴치를 위한 문자교실 프로그램의 운용과 에이즈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이웃들이 성경을 통해서 글을 깨우치고 복음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을 제작 지원하고, 에이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캄보디아에서 진행되는 문자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

교회와 회원님들께서 후원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외 지구촌 이웃들에게 귀중한 성경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CONTENTS

- 2 여는 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 권의현 사장
- 4 One Bible, 지금 이곳에서는 고통 받는 칠레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 8 성경 인사이드 "좋은소식"
미자립성서공회 이야기
- 12 2014년 해외 성경 기증 현황 여러분의 후원으로 82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 14 성서 속의 식물들 올리브나무
- 16 나를 변화시킨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 18 성경 속의 놀라운 이야기 바다, 광야, 오아시스
- 20 선교지에서 온 소식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 22 KBS 단신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프로젝트 교류회의
미주 지역 성서출판위원회 회의
쿠바에 <큰글자 스페인어 성경>을 기증하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2-2103-8861~3
· 편집문의 : 02-2103-8847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1~3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4년 9월 30일
· 인쇄인 : 김현수
· 인쇄처 : 삼립인쇄(주)
· 편집 : 강수현

*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찬성회원(후원, 가정, 평생회원) 회비 납입자 명단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유통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증받은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아르헨티나 어린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해의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 대한성서공회는 여러분의 많은 후원으로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성서공회들은 함께 협력하며 성경을 전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프로젝트 교류회의'를 통해 각 나라의 성서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협력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칠레 방문을 통해 현재 중남미 성서공회들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아르헨티나는 현재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성서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외화를 사용하려면 미리 당국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 액수에 따른 재화를 수출해야만 허가가 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성서공회는 대한성서공회로부터 들어오는 성경의 반입에 관한 허락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 지난 8월 7일, 대한성서공회가 보낸 성경이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갖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 공회와 더불어 해외의 많은 성서공회들은 하나가 되어 성경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성서공회 사장 권의현

문맹, 실업, 범죄와 가정 폭력, 끊임없는 악순환으로
고통 받는 칠레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 을 전해주세요!



지난 7월, 본 공회에서는
칠레성서공회의 프란시스코
비에라 총무의 초청으로
칠레를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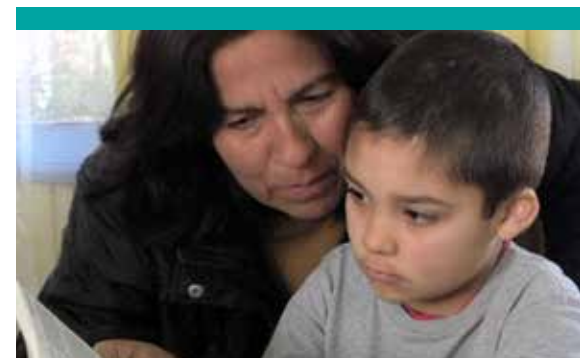
칠레는 페루와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남아메리카 남
부에 위치한 나라이다. 남
북으로 긴 영토와 안데스
산맥으로 인해 사막부터 빙
하까지 다양한 기후를 보
이는 칠레는 남반구에 위치
해 있어서 한국과는 밤낮뿐
아니라 계절도 반대이다. 총
인구 수는 1,700만 명이며
공용어인 스페인어를 사용
한다. 종교 분포는 로마가
톨릭교(70%), 복음주의교
회(15.1%)에 이른다.

칠레성서공회에서 진행하는 프로파밀리아(Profamili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칠레 가정

Chile

칠레는 최근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
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남미의 모범국가
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
인 산티아고 시에서 자동차로 10분만 벗
어나도 화려한 도시와는 삶의 격차가 크
게 나타난다.

실제 방문한 칠레의 교회는 천장이 무
너지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으
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높은 실업률로
인해 범죄율이 높고 가정 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칠레의
여성들 중 35%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형제, 자매를 돌보며 집안
일을 하느라 학교에 나갈 수 없다. 사회
적으로 억압된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
며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다.



기증받은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칠레 성도들

높은 문맹률, 계속되는 가난의 연속

또 하나의 문제는 높은 문맹률이다. 칠레
인구의 4.3%, 약 48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
은 글을 읽고 쓸 수 없다. 이 숫자의 절반
은 여성에 해당한다. 문맹인 이들은 마약
을 운반하는 일을 하며,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해 경찰에 끌려가는
일이 다반사이다. 가난해서 변변한 교육
을 받지 못하고, 교육의 기회가 없다 보니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없어 자녀를 학교
에 보낼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

Chile

이처럼 기회의 부재는 가난의 고리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젊은이들은 점차 범죄에 빠지게 된다.

칠레성서공회는 이런 빈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자 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경을 교재로 하여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칠레성서공회의 창고 관리인으로 있던 직원이 현재 목회자가 되어 8년 전부터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예배 모임시간도 가지면서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의 역할도 하고 있다. 주중에 주민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성경 말씀을 배운다.



칠레성서공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본 공회 권익현 사장(오른쪽)

“

과거 범죄를 저질렀던 젊은이도, 70세가 넘는 할머니도, 고단한 노동으로 학교 다닐 기회가 없었던 농부도 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

”

상처받은 가정, 성경 말씀으로 치유하다.

더 나아가 칠레성서공회는 결손 가정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상담 치료를 해주는 ‘프로파밀리아(Profamilia)’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 폭력으로부터 이어지는 결손가정의 문제는 비단 가정 내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폭력과 마약 범죄 등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칠레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자존감이 낮고, 학교를 나가지 않는 일이 잦다. 또 마약, 가정폭력 및 아동 노동 착취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 살배기 딸을 둔 한 아버지는 생계 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8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을 때, 이미 아이의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사라진 상태였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열한 살 딸은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은 한 시간에 100달러라는 큰 비용이 들며, 그나마도 6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형편이라, 현실적으로 빈민가의 결손가정 어린이들이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렇듯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한 가정 문제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칠레성서공회는 말씀과 함께 심리상담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범죄를 저질렀던 젊은이도, 70세가 넘는 할머니도, 고단한 노동으로 학교 다닐 기회가 없었던 농부도 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봉틀을 기증받아 여성들에게 재봉틀 사용법 및 기본적인 직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칠레의 ‘프로파밀리아(Profamilia)’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큰 의의를 지닌다.

본 공회는 지난 2010년 7,820부, 2013년 8,330부를 기증한 바 있으며, 올해 5,700여 부를 기증하였다. 칠레성서공회는 “칠레성서공회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라는 메시지를와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더불어 칠레성서공회는 기증받은 성경을 심리학자, 심리교육자, 사회복지사와 교사들이 함께 어린이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전달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특히 어린이들이 질적으로 더 나은 삶에 이르도록 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칠레성서공회는 현재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많은 변화를 도전하고 있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프로그램에 사용될 성경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글자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삶을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성경을 기증받고 기뻐하는 칠레 사람들



후원문의

매월 만 원이면 매월 두 권의 성경을 칠레에 보낼 수 있습니다.

☎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3

“좋은 소식” (눅 2:10-11)

지난 6월 17일,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후원으로 쿠바에 <큰글자 스페인어 성경> 10,00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하였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이윤희 목사는 ‘좋은 소식’(눅 2:10-11)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였다. (다음은 이윤희 목사의 설교 본문입니다.)

오늘 쿠바로 성경을 보내는 역사적인 자리
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쿠바 기독교
인의 꿈은 자기 성경책을 갖는 것이라는 소
식을 들었습니다. 쿠바를 후원하기로 한 후
모금을 진행하면서 여전도회원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경남 거제시시찰의 한 회원은 “할렐루야!
쿠바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며 딸
부부의 이름으로 헌금하셨습니다. 서울동
남연합회의 한 회원은 “저희들도 쿠바같이
성경책이 필요했던 상황이 있었고, 우리 앞
서 가신 여러 나라 사람들의 동참이 있었기
에 저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구원
이 있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합
니다.”라고 하며 자녀들의 이름으로 성경책
100권을 후원해주셨습니다. 50대의 여신학

생은 세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
다 선교를 위해 모아놓으신 헌금으로 500권
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하
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고민하시던 어떤 회
원은 한 끼 음식을 하시며 헌금하셨고, 한
여고생은 적은 용돈을 쪼개어 헌금하였습
니다. 오늘 드린 헌금은 이렇게 우리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누가복음 본문은 목
자들에게 들린 좋은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
니다. 밤이 되어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밖
에서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
가 직접 나타나 구세주 나신 소식을 전했습
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의 먹
이통인 구유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
은 보잘 것 없고 작은 자들인 목자들에게 들
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낮은 자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좋
은 소식입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후원 쿠바 스페인어 성경 기증식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은 생명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
리기 위한 것임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
녀가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
도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
며,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심이
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때 독생
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었습니다.

둘째로, 좋은 소식은 영생을 주는 소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
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라 초창기에도 서양 선교사가 전해준 복
음을 듣고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고난을 당하
고 심지어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
다. 여전도회의 후원을 받는 모리타니아 권
경숙 선교사님도 선교 초기에 매를 많이 맞
고, 전기고문도 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
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혹시라
도 복음 때문에 고난 받고 죽을지라도 그것
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
라와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셋째로, 좋은 소식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능력을 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갖고 살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갖도록 유혹합니다. 대표적
인 것으로 ‘몸’과 ‘돈’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런데 몸과 돈은 가장 변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정의롭고 화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
님 나라의 가치는 생명과 평화와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책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소식을 함께 보습니
다. 감사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은 이미 쿠바에 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이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쿠
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요, 이들이 손에 성경책을
받아들고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들보다 더 기쁩니다.

우리가 성경책만 전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성경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쿠바 땅에 있기를 함께
간구합니다. 🌐

미자립 성서공회 이야기

지난 2014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네덜란드 에흐몬드 안 제(Egmond aan Zee)에서 열리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프로젝트 교류회의(Roundtable Exchange)에서 미자립성서공회들의 상황과 비전을 들을 수 있었다.

파라과이 로벤 총무



대한성서공회에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7,200부의 성경은 파라과이성서공회의 사역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파라과이는 한국에서 지구 정 반대편에 있지만 여러분의 베풀음으로 인해 진정한 지구촌 이웃임을 느낍니다. 해외 많은 곳에 성경책을 전하기 위해 후원해주시는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더욱더 번창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빅터 칼리셰르 총무



이스라엘에는 많은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에티오피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위해 8,000부의 암하릭어 성경을 기증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은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영어 대조 성경을 기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성서 히브리어는 매우 어려워 이스라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어 성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히브리어-영어 대조 성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 사전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처럼 영어권 나라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요르단과 성경의 땅 팀 랍비 마다낫 코디네이터



이 자리를 빌어 저희에게 아랍어-히브리어 대조성경 3,000부를 기증해주신 여러분들께 가슴속으로부터의 크나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대조성경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라비아어와 히브리어, 두 개의 언어가 나란히 있는 이 성경을 들고 두 민족에게 다가가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조성경은 선교를 통해 모두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대조성경을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는 많은 외국의 아랍계 기독교 성도들에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 히브리어로 읽고 더 알아, 성경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 배경에서 성장해서 히브리어나 구약성경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대조성경을 통해 우리 문화 속에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벽을 허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분쟁으로 고통 받는 중동 지역에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간의 통합을 이루는 사역에 큰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증해주신 성경은 우리에게 큰 도움과 큰 축복입니다. 유대계 기독교인,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의 기독교 형제들로부터 크나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포르투갈 니겔 총무



포르투갈성서공회를 대표하여 성서 제작에 도움을 주신 것과 3,850부의 성경을 기증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보내주신 성경은 포르투갈성서공회에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성경과 다양한 성서 그리고 재원마련이 저희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도움으로 포르투갈성서공회는 더욱 발전하고 반포 영역을 확장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페코 즈라테스키 총무



성경 읽기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일상의 언어도 바꿉니다. 또한 성경 읽기는 삶을 사는 방식을 바꿉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후원 덕분에 우리는 번역과 출판 그리고 성서반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의 성서 제작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신 대한성서공회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케도니아 땅에 성서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여러분의 후원으로 47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EUROPE MIDDLE EAST

유럽 - 중동 지역(7개국)

1. 스페인
2. 리투아니아
3. 세르비아
4. 마케도니아
5. 그리스
6. 이스라엘
7.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AFRICA

아프리카(23개국)

1. 세네갈
2. 라이베리아
3. 코트디부아르
4. 말리
5. 부르키나파소
6. 가나
7. 토고
8. 베닌
9. 니제르
10. 카메룬
11. 가봉
12. 콩고공화국
13. 콩고민주공화국
14. 잠비아
15. 짐바브웨
16. 레소토
17. 마다가스카르
18. 모잠비크
19. 말라위
20. 탄자니아
21. 우간다
22. 에티오피아
23. 모리셔스



탄자니아



콩고공화국

EUROPE MIDDLE EAST

ASIA PACIFIC

AFRICA

ASIA PACIFIC

아시아 - 태평양 지역(5개국)

1. 스리랑카
2. 미얀마
3. 남태평양
4. 필리핀
5.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

CENTRAL AND SOUTH AMERICA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지역(12개국)

1. 과테말라
2. 엘살바도르
3. 멕시코
4. 코스타리카
5. 니카라과
6. 파라과이
7. 페루
8. 칠레
9. 수리남
10. 도미니카
11. 도미니카공화국
12. 쿠바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올리브나무 (Olive, <감람나무>)

관련구절

자이트(zayith) 창 8:11; 출 23:11, 27:20; 레 24:2; 신 6:11, 8:8, 24:20, 28:40; 수 24:13; 삿 9:8-9, 15:5; 삼상 8:14; 삼하 15:30; 왕하 5:26, 18:32; 대상 27:28; 느 5:11, 8:15, 9:25; 욥 15:33; 시 52:8(10), 128:3; 사 17:6, 24:13; 렘 11:16; 호 14:6(7); 암 4:9; 미 6:15; 합 3:17; 학 2:19; 속 4:3, 11-12, 14:4

아그리엘라이오스(agrielaos, 야생 올리브나무) 롬 11:17, 24

엘라이아(elaia, 올리브나무 열매) 마 21:1, 24:3, 26:30; 막 11:1, 13:3, 14:26; 눅 19:29, 37; 21:37, 22:39; 요 8:1; 롬 11:17, 24; 약 3:12; 계 11:4

엘라이온(elaion, 올리브 숲) 행 1:12



이름에 대한 논의

올리브나무 과(科)는 전 세계에 400종(種) 이상이 있다. 그것들 중 많은 종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라는데 성경에 나오는 올리브는 유럽 올리브(*Olea europaea*)로 유명해진 것이다. 올리브나무는 주전 3천년 경에 이집트나 지중해 동부 유역에서 재배되었다. 식물학자 뉴베리(Newberry)는 올리브나무의 기원은 이집트라고 주장한

다. 성경을 통해 올리브나무는 사마리아 산지와 구릉지에서 자란 것을 알 수 있다. ‘올레아 유로파에아 실베스트리스(*Olea europaea sylvestris*)’로 불리는 야생 올리브나무는 재배용 올리브나무보다 더 작다. 야생 올리브나무의 열매는 재배용 올리브나무의 열매보다 작고 적은 양의 기름이 함유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7절, 24절에서 언급한 나무가 바로 이 야생 올리브나무이다. 올리브나무들은 껍질을 통해 쉽게 번식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 올리브나무에서 열매를 적게 맺는 올리브나무로 접목하여 쉽게 번식시킨다. 올리브나무는 빗물이 빠르게 빠지는 산지에서 가장 잘 자란다. 열매는 8월에 맺히기 시작하여 12월이나 1월에 익는다.

모양

올리브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며, 약 10m 높이까지 자라지만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약 5m 높이가 된다. 올리브나무 잎의 윗면은 회색 빛을 띠는 초록색이며, 아랫면은 희끄무레한 색이다. 어린 나무의 껍질은 은백색이지만, 나무가 자라면서 점차 진한 색으로 변하며

거칠어진다. 몸통은 비틀어지고 속이 움푹 들어가며 두께가 1m 이상까지 이른다. 올리브나무는 수백년 동안 자라며, 이스라엘에 있는 일부 올리브나무는 2천년까지 살기도 한다.

올리브나무 열매는 길이가 약 2cm이며, 두께는 1cm보다 약간 더 두껍다. 열매 안쪽에는 돌처럼 단단한 씨가 있으며, 부드러운 껍질이 있어서 기름이 함유된 과육을 덮어 준다. 오늘날 성숙한 올리브나무는 10~20kg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가공 처리하면 1.3~2.6kg의 기름을 생산할 수 있다.

특별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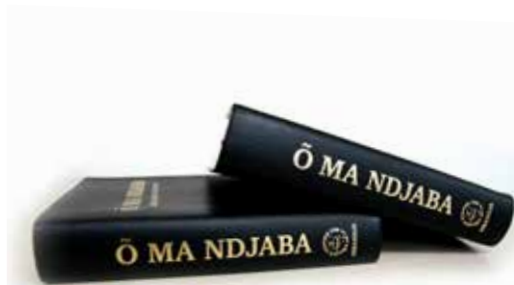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 그루의 큰” 나무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였다. 사람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먹기도 했지만 열매에서 기름을 짜 식용으로, 등불로, 피부에 바르기 위해, 약품으로, 종교적 용도로 사용했다. 야곱은 꿈에 천사들을 본 곳을 기록한 장소라 선포하며 돌 위에 올리브나무 기름을 부었다(창 28:18). 또한 모세는 성막과 성막 기구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수지와 함께 올리브나무 기름을 부었다(출 40:9). 성막에서 봉사했던 아론과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었다(출 29:21). 그러한 의식은 선지자들과(시 105:15; 사 61:1) 왕에게까지(삼상 16:13; 왕상 1:39) 확대되었다.

올리브나무 기름에 대한 주(註)

올리브나무 기름을 가리키는 중요한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는 ‘쉐멘(*shemen*)’과 ‘이쯔하르(*yitschar*)’이다. ‘쉐멘(*shemen*)’은 창세기 28장 18절, 35장 14절과 구약의 다른 여러 책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쯔하르(*yitschar*)’는 처음으로 짠 기름을 가리키며, 거의 매번 히브리어 단어 ‘티로쉬(*tirosb*, “극상품 포도주”, “새 포도주”)와 함께 나오고 (혹은) 새로 수확한 곡물(“다간(*dagan*)”)과 함께 나온다. 예를 들어 느헤미야 5장 11절을 보라. 에스라 6장 9절에서 성경 저자는 기름을 뜻하는 아람어(‘메샤흐[*meshach*]’ - “기름을 바르다” 혹은 “문지르다”의 뜻을 가진 어원에서 유래함)를 포도주를 뜻하는 다른 아람어(‘하마르[*chamar*]’)와 함께 사용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콩고민주공화국에 기증한 음반자어 성경

작년 12월, 전국장로회연합회(예정 통합)의 후원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 음반자어 첫 번역 성경 10,000부를 기증했다. 그리고 지난 8월 전국장로회연합회의 현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윤여식 장로를 통해 한국 교회를 향한 사역을 하기까지 힘이 된 말씀을 들어보았다.

전국장로회연합회는 1959년에 태동하여, 1972년 7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 42회기를 맞이하였다. 장로회는 장로들의 자질향상과 화합, 교회와 교단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로 회원들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같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장로회연합회는 전국 28,000여 명의 회원에 이르렀다.

장로회는 한국 교회의 중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특히 장로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지도자 수련회와 엘더스쿨, 전국장로수련회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2014년 7월, 수련회를 통해 4,500여 명의 장로들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장로회연합회 안에는 4개의 산하기관이 있다. 한국장로신문사와 한국장로교육원, 한국장로성가단, 장학 사업과 구제 사업 등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 본 공회를 통해 성경기증 사역에 동참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에 성경을 기증한 것에 대해 윤여식 장로는 “제41회기 회장이셨던 오정수 장로님과 대한성서공회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승환 장로님의 소



개로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가장 큰 애로점뿐만 아니라 콩고민주공화국의 각 부족들이 활용하는 언어로 된 성경책이 없어 신·구약 아니면 복음서 마다 나누어 돌려보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후원을 결정한 계기에 대해 말하였다. 이어 “예배를 드리기에 각자가 힘들 수도 있고 해석이 다를 수도 있어,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접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에게 그 부족들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책을 보내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전국장로회연합회는 현재 중국, 북한, 필리핀, 바탐방 신학교 등 국·내 외 선교 활동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곳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전국장로회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윤여식 장로는 그의 청년 시절부터 성경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윤여식 장로는 1985년경 북전주 기드온 캠프를 창립한 멤버이다. 약 23여년 간 기드온 활동을 하며 회장직도 맡은바 있다. 기드온 캠프를 시작하며 성경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성경을 배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교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며, 교회, 학교, 호텔, 병원 등을 다니거나 군인들에게 성경을 전하였다.

윤여식 장로는 자신을 변화시킨 말씀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꼽았다. 윤 장로는 “지금까지 전국장로회연합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수없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곤 합니다.”라고 전했다.

윤여식 장로는 전국장로회연합회를 통해 많은 장로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 장로는 마지막으로 “악에서 승리하도록 기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제목을 전했다. 🌐



기증받은 성경을 읽고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

바다

사해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바다를 사해, 곧 죽은 바다라고 부르는데 정말로 바다가 죽은 것일까? 사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다 물이 아주 짜서 그 속에서는 아무 것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사해는 세계에서 가장 짠 바다 중 하나이다. 성서시대에 사해는 종종 이스라엘의 국경 역할을 했다(민수기 34:12; 신명기 3:12-17; 여호수아 15:5). 에스겔이 사해에 관해 본 환상이 에스겔 47:6-11에 나와있다.



홍해

홍해는 붉은 바다라는 뜻인데 정말로 붉은색일까?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홍해는 때로 물속의 붉은 해조 때문에 붉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서의 홍해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홍해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어느 바다이든 간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다(출애굽기 14:21-31; 시편 106:9-12).

지중해

지중해는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 주변의 여러 지역을 누비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 바울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한 번 이상 겪었다. 그 중 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27:13-44에서 읽어보라.



가장 크고,
가장 길고,
가장 낮은

지중해는 2,966,000km²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나일 강이다. 나일 강은 6,650km 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7번쯤 왕복할 수 있는 길이이다.

얼마나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은 사해이다. 수면이 바다의 수면보다 411m나 낮다.



알고
있었나요?

요단 강은 거꾸로 흐른 적이 있다. 그 외에도 만기 힘든 일이 일어났었다. 요단 강이 거꾸로 흘렀을 때 산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려면 시편 114편을 읽어 보라. 요단 강은 갈릴리 호수로도 흘러들어간다. 이 호수는 민물 호수이고 물고기가 많이 있다(누가복음 5:4).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호수의 주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았다. 전통에 따르면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곳이다(요한복음 6:1-14).

광야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출애굽기 15:22-17:1; 신명기 8:1-9). 다음은 이 지역에 있는 몇 개의 광야이다.

수르 광야

시내 반도 북서쪽에 있는 수르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했던 곳이다(출애굽기 15:22-2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물을 정화하라고 하셨다.

바란 광야

바란 광야는 아마 시내 반도의 북쪽 또는 중앙에 있었던 듯하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 광야를 떠난 후 이곳을 지났다(민수기 10:11-13).

신 광야

신 광야는 아라바와 사해 사이에 있었다. 이 광야는 유다와 에돔 사이에 자연스런 경계가 되었다. 오아시스인 가데스바네아가 이 광야에 있었다. 여기서 화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다(민수기 20:1-11).



알고
있었나요?

와디(wadi)란 주로 서부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은 강바닥이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개울은 비가 오는 계절에만 물이 흘렀었다. 일 년 중 나머지 기간에는 개울에 물이 좀 고여 있든가 완전히 말라 있었다. 와디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는 골짜기나 좁은 계곡과 같았다. 와디에는 농사를 지을 만큼 충분한 물이 없었다(예레미야 15:18). 그러나 와디가 말랐을 때 여행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길이 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아브람이 세겜에 가기 위해 바라 와디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고 생각한다(창세기 12:4-6).

오아시스

오아시스란 어떤 곳일까? 오아시스는 사막에 있는 장소인데 지하 샘물에서 계속 물이 올라오는 곳이다. 오아시스에는 땅에 물이 충분히 있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다.

엔게디

엔게디 오아시스는 예루살렘의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사해의 기슭에 있는데 숲이 무성하여 다윗이 몸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고 싶어 했던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최고 병사 3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뒤쫓았다. 다윗이 어떻게 피했는지 알려면 사무엘상 24:1-22를 보라.

가데스

가데스는 시내 반도 북쪽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였다. 940,250l의 물이 매일 솟아나는 샘이 있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12명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다(민수기 13:25-33).



선교지에서 온 소식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에 성경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월 30일, 필리핀성서공회는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인 비사야 지역에 성경 및 성경자료와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전달하기 위하여 5일간의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필리핀성서공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프로그램 중 일부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협력 성서공회들의 연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여행 팀들은 보홀의 튜비공, 세부 지역의 산 레미지오 그리고 레이테의 오르모크에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세 지역의 150개 교회에 2,000개의 간이 의자와 30,400부 이상의 성경 및 성경자료를 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기증한 7,200부의 성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올란드 태풍과 보홀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가족들을 위하여 특별히 출판된 것입니다.

따그빌라란 도시에서 54km 떨어진 보홀 지역의 튜비공에서는 복음교회의 개리 목사와 크리스티 템플라도와 함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템플라도는 7.2도의 지진에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은 개리 목사의 교회의 일부분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리 목사님과 그의 가족은 많은 개인과 단체

들에게 큰 힘이 되기 위해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재난구호 물품을 보관하고 나눠주는 일시 피난소로 제공하였습니다. 개리 목사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더욱 좌절했을 것입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션 팀은 보홀에서부터 세부까지 2시간 반 가량을 배로 이동하였고, 그 후 3시간을 더 가서 세부지역의 북부 산레미지오에 도착하였습니다. 필리핀성서공회는 이곳에 2번째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필리핀성서공회는 50개 교회에 성경과 간이 의자를 전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경과 의자를 받으며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 지역 교회의 마리아 페비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어려움과 기증성경이 어떻게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들이 부족한 경우 저희는 사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는 성도들에게 나눠줄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성서공회가 성경을 반포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받은 이 성경들과 간이 의자는 우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15일, 월드디아코니아 (이사장 오정현 목사) 후원으로 기증한 세부어 성경을 받은 후 필리핀성서공회 노라 루세로 총무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르모크에서는 67명의 목사들에게 성경과 간이 의자를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목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성경반포를 통하여 이 지역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훼손된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는 많은 목회자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많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난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재난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



1



2



3

1. 성경을 기증받은 필리핀 피해 지역의 목사들
2. 기증받은 성경과 성경자료들
3.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필리핀 사람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프로젝트 교류회의



원탁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참석자들

2014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프로젝트 교류회의(Roundtable Exchange)가 네덜란드 에흐몬드 안 제(Egmond aan Zee)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을 비롯하여 90여 개 나라의 성서공회 200여 명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나라의 성서사업 현황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살펴보고 협력 지

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미자립 성서공회의 참가자들은 다른 주요 성서공회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며 향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교류회의에서는 총 265개의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청소년 사역과 수화, 가정 폭력에 대한 외상 치유와 같은 주제로 워크숍 및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본 공회는 1979년 재정적으로 자립한 이듬해부터 계속해서 해외 성서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근래에는 해마다 160만 불가량의 성경과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다른 성서공회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원탁회의 중에 성서공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참석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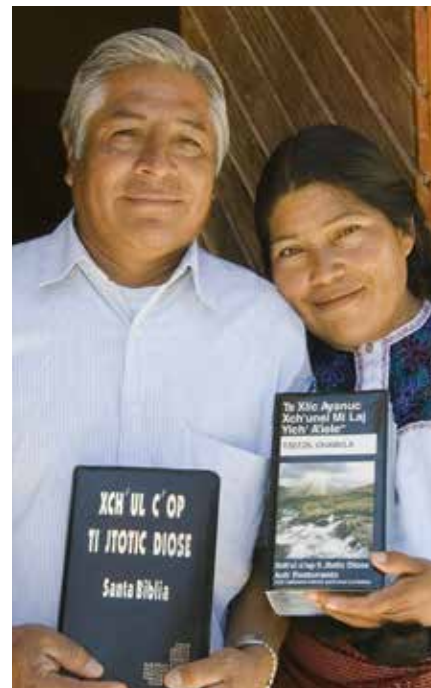


미주 지역 성서출판위원회 회의

2014년 8월 중순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미주 지역 성서출판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성서공회들의 사역을 섬기는 교회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동역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과 병행하면서 진행되었다. 본 공회는 미주 지역을 위한 성서제작센터로 브라질, 콜롬비아 성서공회와 함께 이 회의에 초대되어 참석하였다.

미주 지역의 스페인어권 성서공회들은 1980년 본 공회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하여 자체적인 성서 제작 공급 시스템을 갖추도록 결의하였다. 그로부터 34년의 기간 동안 본 공회는 미주 지역 성서공회들이 성서반포 사역을 원활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각 성서공회들과 교류하며 성서제작은 물론 새로운 성경의 조판, 디자인 등의 성서 출판물 개발을 지원해왔다.

미주 지역 성서출판위원회와 성서공회 대표들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각국 성서공회 대표들은 본 공회의 성경 기증 및 성경 제작을 통한 나눔과 섬김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본 공회가 제작·기증한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미주 지역 사람들



쿠바에 <큰글자 스페인어 성경>을 기증하다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 본 공회 반포센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임원들과 본 공회 모금사업부 장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쿠바에 전달할 <큰글자 스페인어 성경> 10,000부의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쿠바 성경 기증식에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무 이윤희 목사는 “좋은 소식”(눅 2:10-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이번호 <성서한국> 8-9페이지 참조)

이어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쿠바에 스페인어 성경을 제작하여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쿠바에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안경을 구하기가 어려워 <큰글자 스페인어 성경>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공회에서는 <큰글자 스페인어 성경>을 직접 개발하여 조판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그동안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이



이번에 기증한 쿠바 <큰글자 스페인어 성경>

들과 성경의 글자가 작아서 읽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쿠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전하였다.

이번에 기증되는 쿠바 <큰글자 스페인어 성경> 10,000부는 선편으로 운반되어 쿠바의 하바나 항구에 2014년 8월 2일에 도착하였다. 쿠바성서위원회에서는 이 성경들을 인수하여 쿠바 교회 안의 목회자와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 밖의 성경에 관심을 갖는 모든 독자들에게 보급할 것이다.



쿠바 하바나 지역 교회 성도들

‘매달 한 권의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 신청서

(재)대한성서공회

신청인	(남, 여)	교회명	교회직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약정금액	☐ 매월 100,000원(성경 20권)	이메일주소	☐ 소식지 이메일 요청
	☐ 매월 50,000원(성경 10권)	이체일	☐ 매월 5일 ☐ 매월 15일 ☐ 매월 25일 (잔고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금시 1회에 한해 재출금 됩니다.)
	☐ 매월 20,000원(성경 4권)	은행명	계좌번호
	☐ 매월 10,000원(성경 2권)	예금주명	예금주 휴대전화
	☐ 매월 5,000원(성경 1권)	예금주 생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증 상의 생년월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매월 원(성경 권)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업에 후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효성에프엠에스(주)의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신청인: _____ (인 또는 서명)

예금주: _____ (인 또는 서명)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매일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주세요!

1.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합니다.
2. 자동이체 등록시, 효성에프엠에스와 금융기관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예금주[납부자]의 연락처 확인 불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효성에프엠에스(주), 금융기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fnc.c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팩스(02-2103-8896)로 전송해 주세요.
-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으로 발송해 주세요.
-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를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한 권의 성경, 영혼을 살립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유럽 등 세계 곳곳에 계속되는 전쟁과
가난, 정치적, 종교적 박해,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구원과 치유’입니다.

우리의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합니다.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성경 보내기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

10,000원을 헌금하시면,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구촌 이웃들에게 **2권의 성경**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성경 기증을 위한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 대한성서공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하나은행 224-910049-47104

외환은행 630-008603-501

농협은행 355-0025-0990-53

수협은행 033-01-085327

우 제 국 011916-01-000076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성서공회 ▾

성경 지식을 활용하세요!

